국산 버섯

정 다 운
장성 진원동초등학교 3학년

우리 식구는 버섯 요리를 좋아한다. 오늘도 엄마랑 신세계 백화점 쇼핑을 갔다.

여러가지 먹을 것, 화장지, 누나옷까지 많은 것을 사 가지고 왔다.

그런데 영지버섯이 우리 동네 하우스에서 재배하는 것과 약간 달라서 엄마에게 물어봤더니 이것은 수입버섯이라고 하셨다.

수입버섯은 갓 표면의 무늬가 뚜렷하지 않고 갓에는 벌레 먹은 구멍이 나 있었다. 그리고 자루가 많이 끊어져서 보기에 좋지도 않았다. 가장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 동네에서 재배하는 영지버섯은 황토가루 같은 것이 많이 묻어 있는데 수입버섯에는 있는둥 마는둥 하였다.

표고버섯도 우리 농산물은 갓이 크고 두꺼운데 수입버섯은 갓이 작고 얇다고 엄마가 말씀해 주셨다. 또 우리 버섯은 독특한 향기가 있으나 수입버섯은 향기가 별로 없고 자루도 짧다고 하셨다. 다른 버섯과 함께 송이버섯과 목이버섯도 팔고 있었는데 모두가 수입버섯이라고 판매하는 누나가 말을 하였다. 우리나라 송이버섯은 갓과 자루가 단단하고 자루에 흙이 묻어 있는데 수입버섯은 갓과 자루가 물렁물렁하고 자루 끝이 깨끗하다고 하였다.

목이버섯은 우리것은 크고 진한 흑색이지만 수입버섯은 작고 연한 흑색이라고 하였다.

또 우리나라 것은 원래 모습 그대로가 많았다. 중국에서 수입했다는 목이버섯은 부서져 조각난 것들이 매우 많았다.

이렇게 우리 농산물은 버섯 뿐만아니라 모든 것들이 중국에서 수입한것 보다 더 훌륭하고 향기도 좋으며 영양도 매우 좋다고 하셨다.

나도 이젠 엄마따라 시장에 가면 우리 농산물과 수입버섯을 이제 구별 할 수 있을것 같다.